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8월의 책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내가 별임을 한번이라도...”

다른 별에서 온 어린왕자의 시선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

진솔한 문체·동화같은 이야기 삶 돌아보는 깊은 성찰 기회

황현산·김현·김화영 번역 홈페이지에 독후감 의견 교환



프랑스 리옹의 어린왕자 동상

오래 전 일본 하코네 ‘어린왕자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린왕자’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아가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 빠져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몇년 뒤 영화를 발명한 루미에르 형제 취재를 위해 프랑스 리옹 출장 일정이 잡혔을 때 내심 마음을 뺏긴 건 따로 있었다. 이곳이 생텍쥐페리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어린왕자’의 흔적을 찾아봐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의외로 박물관 같은 건 없었다. 생가는 찾지 못했고, 한참을 헤맨 끝에 광장 한 귀퉁이에 서 있는 ‘동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주 높은 단 위에는 ‘어느 별’에서 온 어린왕자가 서 있었고, 바로 앞에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비행사 복장의 생텍쥐페리가 앉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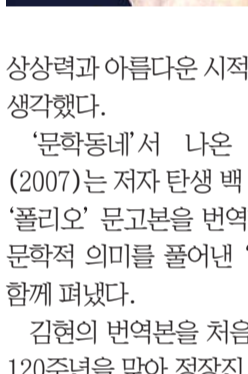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많은 이들이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이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책이기도 하다.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등 책에 등장하는 솔한 대사는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됐을 터다.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8월의 책으로 앙투안 말로제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선정됐다. 1943년 발간된 후 160여개 언어로 번역돼 1억6천만 넘게 판매된 ‘어린왕자’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삽화가 어우러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저자는 서문에서 “어른들도 다 한 때는 어린애들이었던 것이 아닌가(하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는 썩 드물지만)”라고 썼다.

소설은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사랑하는 장미꽃을 남겨놓고 소행성 B612호를 떠나 지구로 여행을 떠난 어린왕자는 상상 속의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많은 이들을 만난다. 권위가 모든 것인 ‘왕’, 찬사만을 바라는 ‘허영꾼’, 술꾼, 사업가, 지리학자, 여우 등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 초반에 등장하는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비롯해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는 더 없이 아름답다.

“우리들은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스럽다. 특급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면서도 무엇을 찾아가는지 모른다. 애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지를 안다. 애들은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인형은 애들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혹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찾는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나에게 우물은 무엇인가. 나의 우물은 도대체 내 속 어디에 숨어 있는가. 내가 별을 보면, 별도 나를 본다. 별에게는 내가 별이다. 내가 별임을 한 번이라도 알다 가자.” 최 교수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다.

올해 탄생 120주년을 맞은 생텍쥐페리는 항공회사에 들어가 15년간 우편항공로를 개척했고 이 기간 사막 횡단은 그의 문학 원천이 됐다.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정찰기 조종사로 복무한 그는 프랑스가 함락되자 미국으로 탈출,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인을 위로하기 위



해 ‘어린왕자’를 썼다. 비행중대에 복귀한 그는 1944년 7월 마지막 정찰을 나간 뒤 귀환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됐다. ‘어린왕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불문학자들이 모두 번역에 나섰다. 신인 출신 고(故) 황현산 평론가는 ‘열린책들’에서 지난 2015년 ‘어린왕자’를 펴냈다. 그는 이 작품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생텍쥐페리의 진솔한 문체를 고스란히 살려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올해 같은 출판사에서 어린왕자가 장미에게 덮어줬던 유리병 모양의 독특한 판형의 ‘어린왕자’ 리커버 특별판(알라딘 단독 판매)을 발간했다. 목포 출신 고(故) 김현 서울대 교수가 번역한 ‘어린왕자’는 2012년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 재발간됐다. 김현은 197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왕자’를 출간했지만 절판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었다. 김현은 ‘어린왕자’가 갖고 있는 “어리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시적인 문체를 문학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문학동네’서 나온 김화영 교수의 ‘어린왕자’(2007)는 저자 탄생 백 년을 기념해 출간된 1999년판 ‘폴리오’ 문고본을 번역한 책으로 생텍쥐페리의 삶과 문학적 의미를 풀어낸 ‘어린왕자를 찾아서’(2007)도 함께 펴냈다. 김현의 번역본을 처음 출간했던 문예출판사는 탄생 120주년을 맞아 정장진 번역으로 ‘어린 왕자: 출간 70주년 기념 갈리마르 에디션’(2019)을 펴냈다. 동화와 함께 개인소장품과 도서관소장품을 모은 백여 개 도판, 작가의 편지, 작가를 기억하는 지인들의 회고록이 담겨 있다. 기존 번역본에 반기를 들고 카뮈의 ‘이방인’ 등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서 번역본의 ‘어린왕자’는 세움에서 나왔으며 아름다운 삽화를 만끽할 수 있는 팝업북과 쉬운 영어로 쓰여져 영문판도 눈에 띈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광주일보 홈페이지, 새말새품지 홈페이지(www.nwna.or.kr),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 새말새품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300자 정도의 독후감을 올려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극을 교환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

나승렬 시인 첫 시집

‘꽃들의 말씀’

꽃들의 말씀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 한편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화단입니다.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셔서 작은 화단에는 달리아, 백합, 상사화, 해당화, 참나리, 국화, 자목련, 삼잎국화들이 철 따라 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꽃들은 나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장성 출신 나승렬 시인 첫 시집 ‘꽃들의 말씀’(문학들)을 펴냈다. 60이 넘어 생애 첫 발간한 시집에는 그동안 써왔던 8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오랜 기간 공력이 깊은 시들은 굳터터기 없는 간결한 시어가 특징이다. 털어낼 것 털어내고, 버릴 것 버린 시가 주는 울림이다.

시집의 제목처럼 다양한 꽃들을 소재로 한 시가 대부분이다. 현직 교장(신광중)이기도 한 시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정에 들꽃화단을 만들고 아이들과 들꽃반 동아리 활동을 해온” 데서 보듯 꽃에 대한 애정이 깊다.

시인에게 들꽃은 친구이거나 스승이었다. 더러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었다.

작품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봄’, 2부

‘여름’, 3부 ‘가을’, 4부 ‘아이들과 삶’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배열돼 있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어느 편에서 읽어도 무방하다. 사계절과 아이들, 삶이 어우러진 꽃 이야기는 그 자체로 그윽한 향기를 발한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것들 암초처럼/ 숨어 있고 막아서고 달려든다/ 생각해 보면 항상 깊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냥 살아요/ 풀들이 밝히면서 깨달은 것/ 괜찮아요/ 밝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꽃 피우며 향기를 내어 주는 풀꽃들...”

표제시 ‘꽃들의 말씀’은 풀꽃들이 일러주는 지혜와 인내를 담고 있다. 비록 밝히는 운명일지라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어주는 삶은 무엇에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 고귀하다.

한편 나 시인은 전교조신문 제1회 참교육문화상, 서정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전교조 해직 기간을 포함해 38년 동안 중·고등 교원, 광주학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7회 광주호른사운드 정기연주회가 4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호른 앙상블로 만나는 베토벤 ‘운명’

광주호른사운드, 내일 금호아트홀

제 7회 광주호른사운드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호른 앙상블 단체인 광주호른사운드는 이날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II ‘운명’을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레퍼토리는 루이지 케루비니 ‘호른 소타나 제2번(호른과 피아노)’, 에릭 이와젠 ‘호른과 바이올린을 위한 곡’, 프란츠 단치 ‘목관 5중주’, 오토마 쇠크 ‘호른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운명’ 전악장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지휘자 장현룡과 악장 김옥길을 비롯해 홍석원·강소명·김건·오은영·이용학·기군홍·신서연 등 호른리스트 20명과 피아니스트 정지연, 바이올리니스트 이준성 등이 출연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특색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광주호른사운드는 현재 6회의 정기연주회와 30여회의 수시 연주회를 통해 총 100여곡의 레퍼토리를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제 8회 호른사운드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III ‘전원’은 오는 11월 15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포럼]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